

감각하는 신체의 황홀

: 개인의 욕망과 국가 윤리 사이

이지순 (통일연구원)

-
1. 들어가며
 2. 감각에 사로잡힌 몸
 - 1) 패션, 스타일의 감각
 - 2) 문제적 후각의 감수성
 3. 외롭고 고독한 정서 감각
 - 1) 관음의 시선과 관능 감각
 - 2) 외로움과 고독의 감각
 4. 나가며
-

1. 들어가며

어느 사회도 고요히 정체되어 변화 없이 머무르지 않는다. 북한처럼 일인 지배체제가 강고한 국가에서 권력의 교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한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변화는 국제정치 환경과 내부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자 과정이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은 엔딩 크레디트에 참여자 이름과 소속을 명시하여 인민대중을 수동적인 구경꾼이 아니라 구경거리를 생산하는 주체로 호명했다. 개개인은 집단 속에 용해된 한 덩어리로 보일지라도 크레디트의 이름은 익명에 용해되지 않은 개별자를 명시한다.¹⁾ 천리마를 전유한 만리마가 천리마기수처럼 성공적인 전형을 만들지 못한 것은 북한 사회가 자신의 욕망을 응시하며 존재의 방식을 조정하는 자기의 테크놀로지(technology of the self)와 관련된 것이 아닐까 짐작된다. 이전과 다른 존재 방식이 자기 자신을 주체로서 인식하고 자각하는 것이라면, 북한 사회가 오랫동안 동력으로 활용해 왔던 집단주의와 구별되는 ‘개별화’ 또는 ‘개인’의 출현으로 불러도 될 것이다.

국가가 지향하는 정치적 성향인 집단주의와 달리 개별화는 삶을 개인적 차원에서 부여한다. 개별화는 개인의 신체인 ‘몸’은 물리적으로 구현하고, 몸은 자아의 구성요소로 재인식된다. 개인의 생명과 삶을 책임지던 배급제가 붕괴되면서 개인을 실존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지탱해주던 국가중심의 가치관과 믿음이 쇠퇴했다. 개인의 경제력은 국가의 동원 체계에 틈을 만들 능력과 동일시되었다. 국가의 지배력이 이완된 북한 사회에서 생존을 위해 선택했던 시장 활동은 개인주의적 자아감, 개별화된 신체의 몸을 성찰하도록 돕는다.

국가주의 원칙에서 개인은 존재하면서 부재하는 이중의 논리에 놓여 있다. 최근에 진행된 북한이탈주민 면담을 보면, 풍속 검열에 걸려 비판서를 쓰더라도 한국 드라마 배우들의 머리나 옷 스타일을 따라한다는 구술은 북한 사회의 변화를 보여준다.²⁾ 각종 소비재에 대한 관심은 생존을 위한 필수품에서 더 나아가 신체를 가꾸고 단장하는 미용품이나 의복, 장신구 등으

1) 이지순, 「김정은 시대 국가주의와 문화적 퍼포먼스」, 『동아시아문화연구』 81, 2020, p.131.

2) 조정아·이지순·이희영, 『북한 여성의 일상생활과 젠더정치』, 통일연구원, 2019, p.242.

로 이어졌다. 집단주의는 국가에 충성하는 윤리적 신체, 노동하는 신체를 구성한다. 반면에 외모를 가꾸고 단장하고, ‘멋’을 부리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규율을 거스르며 자신을 드러내는 개인은 복종하던 신체를 분열하여 억눌러졌던 사적 욕망을 표현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국가의 비전이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로 제시되자 여성의 옷차림과 몸단장도 여기에 부응하는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제7차 당대회에서 처음 등장한 사회주의 문명국은 사회주의 문화를 바탕으로 높은 창조력과 문화수준을 창조하고 향유하는 나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에게 “옷차림과 몸단장을 고상하고 건전하게”³⁾ 하고 다니라는 요구는 기존의 통제 양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일상에서 여성의 외모와 치장, 옷차림에 대한 일상의 관심은 더 이상 억누르기 힘들 정도로 널리 퍼졌다. 여맹 기관지 『조선여성』은 건전한 사회주의 문화와 호응하도록 여성의 몸을 통제하는 기조를 유지하지만, 개인의 기호와 취미를 일부 승인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옷차림과 몸단장은 단순한 형식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사상정신상태를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⁴⁾로 비사회주의 풍조를 경계하면서도 “자기 기호에 맞는 옷을 선정하여 맵시있게 입음으로써 문화적인 정서가 넘치게 하여야 한다”⁵⁾고 강조함으로써 자기표현과 개성이 발휘될 여지를 준다.

그렇다면 북한 사회에서 자기의 테크놀로지에 기반한 개인은 어떻게 표상되는가? 국가 권력이 파놉티콘처럼 행사되는 북한에서 사적 욕망과 기호(taste)가 공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가? 국가의 편재된 시선 아래 존재하는 북한의 공간물은 새로운 개인을 어떻게 서술하는가? 국가 규율과 검열 체계를 준수하는 인물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출하는 비밀은 없을까?

이 글은 북한 문학이 당 문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작가가 자신의 글쓰기에서 개인의 존재성, 개별화를 무의식적으로 표출한다고 가정한다. 자아의 표면인 몸, 신체 지각을 통해 집단주의가 구성하는 윤리적 신체, 복종하는 몸에 어떤 균열이 발생하는지 보고자 한다. 몸의 균열은 개인의 지각, 개별적 자아의 자기 인식과 북한의 변화 과정을 담고 있다. 토도로프는 현실 속의 일정한 시공간에 있는, 고유한 특징을 가진 유일무이한 인간을 다른 개인들의 감상을 위해 그렸을 때에만 ‘개인이 재현’되었다고 말한다. ‘개인의 재현’은 ‘개인의 찬미’로서, 있는 그대로의 인간과 삶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둔 인본주의적 사유라고 보았다.⁶⁾

개인의 재현이 있는 그대로의 삶을 지각하는 것이라면 이는 감각의 재현으로 살펴볼 수 있다. 감각은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다. 미각, 후각, 시각, 청각, 후각 등 오감은 세상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접착점이다. 감각으로 파악한 세상은 뇌에 입력되어 연속적인 정보로 축적된다. 감각은 개인의 경험이기도 개별적이고 주관적이지만 시대와 공간의 맥락, 문화적 상태와 관련되고 때로는 인종과 계급, 성별에 관여하기에 사회적 경험이기도 하다. 또한 개인이 몸으로 느끼는 감각은 국가의 파노라마적 시선이 감촉하지 못하는 부분이며, 개인의 자기 인식과 무의식이 표상되는 부분이다.

일상에서 개인의 기호와 취미, 자기표현의 욕구는 외모 가꾸기와 패션 등 몸의 표면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공적 언어 체계인 문학에서는 몸의 이면에 주관적인 감각으로 표상된다. 감각은 윤리적 신체에 균열을 일으키며 개인이 발견되는 지점이라 볼 수 있다. 특히 1인칭 주인공 시점은 내면의 흐름을 ‘나’의 관점에서 감촉하며 내면과 감정적 반응을 면밀하게 보여준다. 1

3) “옷차림과 몸단장을 사회주의문명강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고상하고 건전하게 하자.” 『조선여성』 2016.11, p. 53.

4) “겨울철옷차림을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하자.” 『조선여성』 2014.12, p. 52.

5) “맵시있고 문화적인 여성들의 가을철옷차림.” 『조선여성』 2016.11, p. 40.

6) 츠베탕 토도로프·베르나르 포크를·로베르 르그로, 『개인의 탄생』, 전성자 역, 예크리, 2006, pp.7-9.

인칭 주인공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이전과 다른 의식의 변화와 관점의 차이를 만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럼예성의 단편소설 「사랑하노라」(2018)와 박광의 단편소설 「정든 곳」(2019)을 주목해 볼 수 있다.

2. 감각에 사로잡힌 몸

— 럼예성의 「사랑하노라」(2018)를 중심으로

럼예성의 「사랑하노라」(2018)는 언제나 1등이 되는 것에 사로잡힌 연구사 ‘홍유정’의 이야기이다. 어렸을 때부터 체구도 작아서 줄을 지어 걸어가도 맨 뒤에 서게 되고, 출석부 이름도 맨 뒤에 있는 것이 싫어서 이름이 제일 먼저 불리고 제일 앞에서 걸어가야 하는 사람이 되기를 꿈꾸었다. 도에 있는 1중학교도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이과대학도 1등으로 입학했다. 현재 근무하는 유기화학연구소에서 파마약연구조책임자이자 연구소에서 유일한 처녀 조장이며, 일용품 연구실 차기 실장으로 임명될 예정이었다. 연구소 소장이 “우리 식의 파마약을 드디어 만들어 냈다”고 치하하며 시험생산을 공표하려고 할 때 한 목소리가 들린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갑작스럽게 일용품연구실 실장으로 배치되어 온 김정인으로, 그는 유정의 실험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시험생산 보류를 제기한다. 대학 때 유정과 1, 2등을 경쟁했던 김정인이 실장으로 오면서 유정에게 열패감을 안기며 갈등이 시작된다.

국산화에 만족하는 유정에게 정인은 외국 것을 추수하는 사람으로 비춰진다. 그가 가진 외국 물품들이나 그의 세련된 용모는 유정이 그를 오해하도록 부추긴다. 이때 유정의 오해를 풀어주고 국가 담론을 웅변하는 인물은 대학 때의 담임 선생님이다. 담임은 인물 비중은 작지만 ‘나’와 정인의 조율자로 등장하여, 정인이 미처 말하지 못하는 부분을 대신 전달한다. 선생님은 정인의 사회적, 이념적 신념을 해설하여 정인에 대한 유정의 이해를 돕고, 국가 담론을 순수한 상태로 보존하도록 한다. 선생님의 발화는 작가가 직접적인 언어로 국가 담론을 수행하도록 조절하고, 정인의 신념체계를 ‘나’의 것으로 모색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선생님이라는 작중 인물의 말이 아니라, 국가가 공인한 것을 작가가 전달한 공적 언어의 체계를 가진 것이다.

럼예성의 「사랑하노라」는 이전과 다른 서술 전략과 기법으로 이미 주목을 받았다. 김성수는 이 소설에서 2018년 평양 청춘남녀의 내면 풍경을 읽었다. 또한 파마약 개발을 통해 청춘남녀는 사랑을 확인하고 국가적 자부심도 갖는 과학기술 미담이자 연애서사로 평가하였다.⁷⁾ 오창은은 ‘우리식 파마약 개발’을 둘러싸고 주체의식과 세계와의 경쟁이 충돌한다고 분석하면서,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욕망이 ‘누설의 서사’로 드러나며 일상생활에서의 소비 욕망과 국가 기구의 공적 담론의 간극이 노출되었다고 보았다.⁸⁾ 오태호는 이 소설의 인물이 당문학적 이데올로기와 인물의 내면이 경쟁하고 갈등함으로써 입체적으로 형상화된 점에 주목하면서 북한 문학의 생동감을 포착하고 있다. 일등주의에 대한 북한 사회의 욕망, 심리 묘사의 리얼리티 등 감정의 섬세한 포착이 소설의 핵심적 매력이라고 평가했다.⁹⁾ 오창은이 세계와의 소통에 대비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오태호는 자력갱생 논리가 일등주의 담론으로 이어졌다고 보았

7) 김성수, 「인민의 사랑과 일상의 행복」, 남북문학예술연구회, 『감각의 갱신, 확장하는 인민』, 살림터, 2020, pp.17-25.

8) 오창은, 「북한 자력갱생 담론과 인민의 삶 대응 양상 연구」, 『통일인문학』 80, 2019, pp.99-104.

9) 오태호, 「김정은 시대 북한 소설의 징후적 변화 양상 고찰」, 『어문연구』 103, 2020, pp.223-230.

다. 선행연구들은 세계화와 일등주의, 자력갱생과 과학기술 중시가 일상의 서사로 구체화 되었으며, 이 과정에 청년들의 연애 서사가 탁월한 감정 묘사를 동반하고 있어 종합적으로 매력 있는 작품이라고 중론을 모았다.

불화하는 유정과 정인의 중재자 선생님의 말씀, 정인의 행동, 유정의 열정은 북한이 산업 부문에서 세계화를 지향하고, 세계와의 경쟁에서 우수한 실적을 내고자 하는 국가적 욕망을 성공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렬예성 소설의 독특한 점은 감각을 통해 타자를 지각한다는 점에 있다. 큰 틀에서 서사의 진행보다 미시적으로 작중 인물이 어떻게 대상을 지각하고 감각하는지가 흥미로운 부분이다.

1) 패션, 스타일의 감각

1인칭 주인공 홍유정이 김정인을 지각하고, 감정이 움직이고,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는 방식은 감각에서 비롯된다. 소설의 도입부에서 유정은 “한가지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라는 어딘가 귀익은 “부드럽고도 힘있는” 목소리를 지각한 후에 정인을 인지한다.

순간 나는 그만 돌처럼 굳어져버렸다.

품위있게 지은 까만 양복안에 까만 셔츠를 받쳐입고 팔색의 줄무늬넥타이를 단정하게 맨 청년이 나를 바라보고있었다.

처녀처럼 맑아보이는 얼굴에서 침착하고 리지적으로 빛나는 눈…

(…중략…)

몰라보게 변한 모습이였다.

언제나 텅텅하던 농민출신 대학생의 옛모습은 물에 씻긴듯 사라지고 세련되고 준수해진 모습이 나에게서는 놀랍기도 하고 어색해보이기도 했다.

-렬예성, 「사랑하노라」 부분(『조선문학』 2018.3.)

유정의 시선에 먼저 들어온 것은 얼굴이 아니라 그가 입은 옷이었다. 검은색 셔츠와 양복, 팔색 줄무늬 넥타이를 갖춰 입은 남자의 얼굴을 보자, 단번에 그가 누구인지 알게 된다. ‘언제나 텅텅하던 농민출신 대학생’의 모습은 물에 씻긴 듯 사라지고 ‘세련되고 준수해진’ 모습에 나는 놀랍고 어색함을 느낀다.

그 사람은 퍼뜩 손목시계를 내려다보았다.

류달리 품위있어보이는 시계였다. 어쩐지 쓴웃음이 입가에 떠올랐다.

대학시절의 그를 연상시킬만 한것은 어디에도 없었다.

-렬예성, 「사랑하노라」 부분(『조선문학』 2018.3.)

류달리 품위 있어 보이는 고급 시계는 수수하고 평범했던 과거의 모습을 완전히 지운다. 옷은 개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어떤 가치감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몸에 걸치는 장신구나 의복의 양태가 달라질 수 있다. 유정이 기억하는 대학시절의 정인은 조용히 대화하는 학생들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먼저 말을 걸거나 적극적으로 사교를 하는 성격이 아니었다. 대학생들 사이에 섞이면 그저 군중의 흐름으로 보일 정도로 특색 없는 모습이였다. 정인의 세련된 옷차림과 고급 시계는 유정의 기억 속 정인과 분리되면서 다른 사람처럼 보이게 한다.

농촌이 아니라 도시 사람, 텅텅한 모습이 아니라 세련된 모습, 듣기만 하는 소극적 성격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익을 제기하는 능동적 성격은 그의 복장과 어우러져 있다. 게다가 고급 시계는 계속해서 유정의 신경을 거슬리게 한다.

인간은 옷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위상을 확인하고 확장하려는 욕구가 있다.¹⁰⁾ 세련된 옷과 고급 시계는 소비패턴이자 ‘디드로 효과(Diderot effect)’로 보인다. 디드로 효과는 새로운 물건을 갖게 되면 미적 통일성을 위해 여기에 어울리는 다른 물건을 구입하는 소비패턴이자 욕망의 연쇄를 일컫는다. 정인의 신체를 감싼 패션은 도구적 실용이 아니라 심미적 가치가 더 우세한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유학을 다녀오면서 ‘외국물이 든’ 정인에게 반발심이 생긴 유정은 보조제 시약 실험을 성공리에 마쳤지만 다시 정인과 마찰을 빚는다. 유정은 모두에게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성과를 냈지만 정인은 그것이 세계적인 수준이 아니라는 이유로 퇴짜를 놓는다. 더불어 유정에게 눈을 높이라고 충고한다. 서로 냉랭한 사이가 되었지만 유정의 시야에 정인은 선명하게 감각된다. 자신과 한 마디도 나누지 않는 정인은 “눈부시게 하얀 목달개와 티 한점없이 반짝거리는 까만 구두”로 지각된다. “하얀 양복을 입고 굽실굽실한 머리를 내리드리운” “아릿답고 순진해” 보이는 처녀와 대화를 나누는 정인을 보자 유정은 “이상한 아픔이 온몸으로 퍼져갔다.” ‘뽀족한 하얀 구두’, ‘하얀 양복’, ‘하얀 멜가방’의 ‘아름다운 처녀’는 다른 나라의 파마약과 북한 파마약의 대비분석지표 분석을 의뢰받은 사람이다. 그러나 이 처녀는 유정이 질투를 통각으로 느끼도록 이끄는 트리거이다.

2) 문제적 후각의 감수성

이 소설에서 가장 강렬한 감각은 후각이다. 냄새는 매우 유혹적이고 도발적인 감각이지만, 언어로 묘사하기 어려운 침묵의 감각기에 상상력을 자극한다.¹¹⁾ 시각이 이성과 문명을 주도하는 감각으로 숭배되어 왔다면, 후각은 광기와 야만의 감각으로 규정되면서 오랫동안 침묵당해 왔다.¹²⁾ 그러나 후각은 원초적인 감각이기에 생물학적 존재성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도록 한다. 유정이 이성적으로 정인을 판단하기 전에 후각이 먼저 발동되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그에게서는 연한 향수내가 풍겨오고있었다. 대학시절에는 전혀 느낄수 없었던 야릇한 냄새가...

우산상표에 눈길이 가자 마음이 아파왔다.

류학을 갔다오고 외국물을 먹고오면 외국것만 눈에 보이는 이런 사람들때문에 가슴아프게도 내 나라의것이 무시당하고있다. ...그토록 힘들게 창조해낸 내 나라의것이!

-렘예성, 「사랑하노라」 부분(『조선문학』 2018.3.)

정인의 존재성을 드러내는 “은근히 풍겨오는 향수냄새”는 정인이 구축한 새로운 ‘후각적 정체성’¹³⁾을 의미한다.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차원에서 영향을 미치는 냄새는 강렬한 정서적 반응을 불러일으키는데,¹⁴⁾ 소설에서는 ‘은근히’ 풍겨오는 ‘야릇한’ 냄새로 표현된다. 또한 정인의

10) 박종성, 『패션과 권력: 또 다른 지배와 복종』,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0, p.42.

11) 라이얼 왓슨, 『코』, 이한기 역, 정신세계사, 2002, p.17.

12) 콘스탄스 클라센 외, 『아로마-냄새의 문화사』, 김진옥 역, 현실문화연구, 2002, p.13.

13) 콘스탄스 클라센 외, 『아로마-냄새의 문화사』, 김진옥 역, 현실문화연구, 2002, pp.223-236.

14) 콘스탄스 클라센, 『아로마-냄새의 문화사』, 김진옥 역, 현실문화연구, 2002, p.10.

향수는 관리되는 신체, 매력적인 몸의 이미지를 창출하는 소비문화를 구현한다. 1인당 GDP가 상승하면 감각소비는 통상 미각에서 후각으로 넘어간다고 한다.¹⁵⁾ 향수를 사용하는 남성은 도시적이고 세련된 분위기를 풍긴다. 매력적인 향, 고급스런 옷차림과 품위는 농민출신이었던 과거의 촌스럽고 평범한 이미지를 걷어낸다. 게다가 정인의 향수는 유학을 다녀온 후 외국제를 더 좋아하며 우리의 것을 폄하하는 사람으로 변한 증거로 비춰진다.

시각에 잡힌 옷이나 우산, 시계는 이성적으로 사고하며 거리를 돌 수 있다. 그러나 그에게서 풍기는 ‘아름한 냄새’인 향수는 차단하기 어려운 후각을 자극한다. 오테호는 이를 페로몬이라 해석했다. ‘매혹의 정수’ 페로몬은 욕망의 전달자로서 의심할 바 없이 강렬한 자극제이다.¹⁶⁾ 이는 유정이 정인을 관능적으로 감각하는 매개가 된다. 동시에 ‘아름한 냄새’는 그의 도덕성을 의심하는 자신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혹되는 자기 자신과의 불화를 나타낸다. 본능적으로 매력을 감지했기 때문에 ‘아름하게’ 느낀 것이다. 정인의 향기는 심리적 경계를 뛰어넘어 감정과 관능의 영역으로 옮겨갔다.¹⁷⁾ 게다가 유정은 정인을 감각할 때 향수 냄새를 먼저 맡는다. 강력한 신체적, 정서적 영향력을 갖는 정인의 향수냄새는 모습을 시각으로 인지하기 전에 자신의 존재감을 뚜렷이 보여준다. 뒤에 남기는 냄새 자국은 한 개인이 세계 내에서 선택하는 특정한 경로의 흔적이다.¹⁸⁾ 이 경로는 유정이 정인에게 향하는 곳이며, 유정의 파마약이 지향하는 목표점의 경로이다. 그렇기에 정인의 향수냄새가 외국의 선진문물을 의미한다면, 유정은 독한 시약 냄새로 표상된다.

어쩌다 명절날 유원지에 놀러나갔다가 시약냄새때문에 슬슬 피해가는 처녀들을 보았을 때의 그 쓰라림, 바로 그들의 아름다움을 위해 그토록 애타게 노력하고도 배척받는 그 아픔으로 울었었지.

-렘예성, 「사랑하노라」 부분(『조선문학』 2018.3.)

정인이 유정의 보조제 시험 생산을 중단시킨 이유는 냄새문제와 머리파장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유정의 어머니는 “온통 시약냄새밖에 나지 않는 딸의 옷에 향수를 치며” 냄새를 가리려 하고, 미용사는 “우리 파마약은 냄새두 좀 센데다 머리파장이 곱지 않아요. 괜히 머리만 망친다니까.”라고 평가한다. 해로운 냄새는 외국과 비교해 제품의 질이 떨어지는 징표이자 북한 제품의 한계를 의미한다.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주변적이며 열등한 기술력을 뛰어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정인의 향수냄새와 유정의 시약 냄새는 냄새의 위계를 말해준다. 독한 시약 냄새는 세계적인 선진 기술을 따라잡지 못한 북한을, 매력적인 향수 냄새는 선진 기술을 가진 외국을 환유하는 것이다. 어머니가 시약냄새 나는 옷에 아무리 향수를 뿌린들 냄새는 사라지지 않는다. 유정에게 배인 냄새는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기에 야유회에서 빠질 수밖에 없었다. 냄새의 정치학은 “하층 계급은 냄새가 난다”는 조지 오웰의 말로 요약될 수 있다. 냄새로 계급이 구분되는 것처럼, 파마약 냄새는 기술의 세계화를 구분하는 잣대로 작동하는 것이다.

소설에서 새로운 기억과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또 다른 후각이다. 유정은 전국 각지를 돌며 파마약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왔을 때 연구실 창문 너머로 가지가 휘도록 빨간 사과가 주

15) 문성림, 『컨서스』, 미디어숲, 2020, p.00.

16) 라이얼 왓슨, 『코』, 이한기 역, 정신세계사, 2002, pp.86-87.

17) 콘스탄스 클라센 외, 『아로마-냄새의 문화사』, 김진옥 역, 현실문화연구, 2002, pp.14-17.

18) 콘스탄스 클라센 외, 『아로마-냄새의 문화사』, 김진옥 역, 현실문화연구, 2002, p.158.

령진 과수원이 시야에 들어온다.

문득 따뜻한 추억의 파도가 그윽한 사과향기를 싣고 조용히 밀려왔다.

기숙사생이어서 학급동무들의 도움을 많이 받던 그가 그들을 위해 유일하게 성의를 표시할 기회는 여름방학때뿐이었다.

그가 여름방학때마다 잊지 않고 가져오던 사과 한지함.

- 렬예성, 「사랑하노라」 부분(『조선문학』 2018.3.)

정인은 고향에서 사과를 가져와 학급동무들에게 나누어주고, 유정도 맛있게 먹었던 날이었다. 저녁에 되어 집에 가려던 유정은 어쭙게 웃으며 서성거리던 정인과 마주쳤다. 정인은 얼굴을 붉히며 다 나누어주고 보니 맨 밑에 큰 사과 한 알이 남았다고 하면서 유정에게 건네주었다. 창문너머 보이는 사과를 보고 향기를 떠올리자 유정은 고향의 사과 사랑을 하며 소처럼 웃는 정인이 기억났던 것이다.

냄새만큼 기억에 남는 것도 없다. 어떤 냄새를 맡은 다음 냄새와 관련된 기억들이 떠오르는 것은 후각이 차단할 수 없는 유일한 감각이기 때문이다.¹⁹⁾ 그동안 잊고 있었던 기억이 사과향기로 일순간 솟아오르는 순간, 사과는 '마들렌 효과'로 작동한다.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유래한 '마들렌 효과'는 냄새가 기억을 환기하면서 세세하고 풍성하게 기억의 풍경을 재현하는 것을 일컫는다.²⁰⁾ 냄새는 지적인 감각이 아닌 정서적인 감각이며, 무의식적 지각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인의 향수가 인공적이며 이국적인 엑조티시즘이라면, 사과향기는 자연적이며 향토적인 로컬리티이다. 유정에게 "내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있는 그날의 사과향기"는 국산화를 지향하는 자국중심적인 후각인 것이다.

유정은 자신이 개발한 파마약으로 파마를 했지만 참혹하게 실패한다. 이 과정에서 유정은 문제를 해결할 힌트를 얻었지만 정인은 고통을 느낀다. 어쨌거나 "우리 식 파마약의 공업화"를 토의하는 차원에서 소설은 마무리된다. 두 사람의 사랑은 여운을 남기며 끝났다. 열등한 기술력을 함의했던 냄새문제는 혁슬리의 『멋진 신세계』처럼 향기의 유토피아로 나아가진 못했다. 그러나 렬예성의 「사랑하노라」는 감각이 삶의 영역에 침투해서 어떻게 개인의 의식과 기억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삶의 스타일을 감성적으로 연결하는지 보여준 소설이다. 냄새의 정치학과 위계질서, 냄새와 관련된 기억의 네트워크는 소설의 중요 맥락을 형성한다. 도덕적 품성과 정신으로 상대방을 인지하고 평가하던 양상과 달리 그가 입은 옷, 구두, 시계, 우산 등 물질적 차원에서 감촉되는 양상은 북한에서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보여준다.

3. 외롭고 고독한 정서 감각

- 박광의 「정든 곳」(2019)을 중심으로

박광의 소설 「정든 곳」은 분교 교사가 등대섬으로 향하는 과정의 이야기이다. 등대섬에서 제일 젊은 '나'는 등대장에게 긴급임무를 받고 처녀교원을 데리러 물에 간다. 섬으로 가는 여정에서 비바람을 맞닥뜨리지만 무사히 도착한다. '나'의 이름은 '성운'이고 처녀의 이름은 '초향'이다. 회상 장면에서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만 매우 희소하다. 통성명을 하지

19) 라이얼 왓슨, 『코』, 이한기 역, 정신세계사, 2002, pp.20-21.

20) 라이얼 왓슨, 『코』, 이한기 역, 정신세계사, 2002, pp.234-235.

않고 배에 오른 두 사람은 서로를 부르지 않는다. 상대를 부르지 않아도 지척에서 목소리를 듣고 대화를 주고받는 전마선은 매우 협소한 공간이다. 이 소설에서 공적 언어를 대변하는 사람은 처녀교원이다.

나는 물에 나가고 싶은 사람이다. 나는 섬을 벗어나기 위해 등대섬에서 사용하는 ‘소리신호기’를 현대식으로 개발하는 ‘무선전자파신호연구’를 짬짬이 한다. 연구가 성공하면 한적한 섬의 등대원이 아니라 어느 상급단위의 연구사나 기술지도일군이 되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무선전자파신호기 부품 시험을 하다 등대불을 꺼뜨리고, 해상경보를 제때 내보내지 못하는 실수를 하게 된다. 해상경보가 뜬 밤중에 배가 없으리라 생각한 나는 등대불이 꺼진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우리가 보내는 빛은 어머니조국이 자기 아들딸들에게 보내는 사랑이란 말이요. 그러나 등대의 불빛은 절대로 꺼져서는 안되오. 순간도 말이요.

난 동무의 심리상태는 정확히 모르겠소. 하지만 여기서 일하고있는 동안은 량심적으로 일하기를 바라오.

- 박광, 「정든 곳」 부분(『조선문학』 2019.12)

등대장에게 등대는 어머니조국이 아들딸들에게 보내는 사랑이다. 절대로 꺼뜨려서는 안 되는 빛이다. 나의 안일한 태도를 비판한 등대장은 양심적으로 일하라고 충고한다. 등대장의 생각은 처녀교원이 섬의 분교에 가지는 사명감과 거의 동일하다. 지도에도 보이지 않는 척박한 등대섬에서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나는 분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책임감을 갖는 처녀교원에게 감화되는 것이 골자이다. 처녀교원이 굶은 날씨에도 기어코 섬에 온 것은 먼 오지에 까지 국가의 교육 혜택이 주어지는 것을 환유한다. 등대의 불빛이나 국가의 교육 혜택은 ‘빛’으로 환유된다. 등대가 빛으로 해로를 밝히듯, 교육은 어떤 아동도 소외되지 않게 보살펴주는 빛과 같은 국가의 혜택이다.

등대의 빛의 감각은 교육을 통한 계몽의 감각과 같다. 빛이 어둠의 공포를 몰아내 주듯, 교육은 무지의 눈을 뜨게 한다. 처녀교원이 소중히 안고 온 채송화 화분은 국가의 교육혜택과 은혜를 상징한다. 나 또한 파견장을 받고 이곳에 배치되어 왔을 때 자기희생을 하는 자기충만감, 남들이 안 가는 길을 가는 자신에 대한 자족감,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자기과시의 감정이 있었다. 환송의 꽃다발을 비장한 마음으로 받고 왔지만, 현재 내가 느끼는 것은 처음과 달리 고독과 외로움, 자신의 꿈과 희망, 포부를 펼치기 위해서 섬을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처녀교원이 채송화를 가져온 이유는 “채송화가 자기를 움푹워주고 키워주는 땅이 고마워서 그 땅에 꼭 붙어서 자라는것 같아요. 아마 땅도 그것이 기특해서 갖가지로 고운 꽃을 피워주는거구요.”라고 답한다. 처녀교원의 말대로라면 채송화가 움트고 뿌리내리고 꽃을 피우는 것은 채송화의 의지가 아니다. 이를 치환하면, ‘나’의 성장은 국가/당의 덕분이기에 국가/당의 의지를 내면화하고, 그런 국가/당은 나를 ‘기특하게 여겨’ 나의 능력이 개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이다. 처녀교원 또한 섬에 오는 것을 고민했지만 채송화를 보며 자신의 의지를 다진다.

난 큰 마음을 먹고 떠나왔지만 자신을 믿을수 없어요.

내 마음의 꽃인 이 채송화를 뿌리내리게 하고 마음도 가꾸려고 해요.

- 박광, 「정든 곳」 부분(『조선문학』 2019.12)

처녀교원의 위와 같은 말에 나는 “맑은 거울앞에 자신의 추한 물결이 드러난듯”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 “애되고 천진란만한 처녀로만 보아왔던 그의 마음속에 간직되어있는 고결한 정신세계에 속이 질렸던” 나는 갑자기 인생의 진리를 깨닫는다. 조국을 사랑하는 것만큼 자기의 인생이 빛나고, 조국은 언제나 자기의 참된 아들딸들을 잊지 않고 모든 정을 다해 그들의 생을 빛내 준다는 것을. 소설의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처녀교원은 나에게 “인생의 철리를 새롭게 깨우쳐준 선생님”처럼 느껴진다.

소설은 독백소설이나 사소설처럼 서술된다. 소설은 기존의 긍정적 주인공과 다르게 ‘나’의 감정기복과 욕망을 담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나의 감정에 따라 타자인 처녀교원을 감각하는 양상이 변화하는 부분이다. 특히 ‘나’에게 처녀교원은 관찰의 대상이자 시각으로 감각되는 존재라는 점이다.

1) 관음의 시선과 관능 감각

섬에서 제일 젊기에 긴급임무를 받은 나는 며칠 동안 계속 바다날씨도 사납고 발동선도 고장인데, 작은 쪽배 같은 전마선으로 처녀교원을 데리러 가게 되어 투덜거린다. 나는 부듯가에서 연분홍빛 외투자락을 해풍에 날리며 배를 기다리는 “애젊은 처녀”를 보게 된다.

몸매가 호리호리하고 키도 별로 크지 않은 한마디로 연약해보이는 그런 형이었다.

얼굴만이 발그스름하니 무르익기 시작한 복숭아처럼 귀염상스러웠다.

애된 처녀를 선생님이라고 부르자니 좀 어색해졌다.

(사범학교를 갓 졸업하고 배치받았다고 했지. 교원치고는 아직 애송이로구나... 이렇게 어리고 애티나는 처녀가 사나운 날에 기어코 등대섬으로 떠나겠다고 고집했던 말인가?)

- 박광, 「정든 곳」 부분(『조선문학』 2019.12)

등대섬에서 어물어물하다 시간을 보내는 자신의 상황이 불만스러운 상태에서 헤엄쳐서라도 오겠다고 고집부린 처녀교원이 매우 어린 처녀여서 나는 ‘언짢은’ 기색을 숨기지 않는다. 나의 시각에 맺힌 교원은 ‘교원’이 아니라 ‘옛된 처녀’로서 감각된다. 나는 호리호리한 몸매를 가진 연약한 외형, 복숭아처럼 귀엽고 발그스름한 얼굴을 보고 ‘애송이’로 판단한다.

나와 처녀가 탄 전마선은 쪽배처럼 작은 배이다. 노를 저으며 섬으로 가는 바다는 열린 공간이지만 오히려 폐쇄된 공간이다. 바다는 거대한 장벽처럼 배를 둘러싸고 있으며, 배는 두 사람의 움직임을 구속한다. 배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갈 수 없고, 섬에 닿기 전까지 어떤 방문자도 없다. 통로가 막힌 고립된 공간에서 처녀교원은 관찰되고 감각되는 대상이다.

처녀가 몸을 난닥 일으키며 갈매기를 향하여 손을 젖는다.

처녀의 얼굴엔 천진한 웃음이 남실거렸다.

순간 나는 머리가 핑 도는듯 한 기쁨을 느꼈다.

초라한 전마선에 불쑥 피여난듯 한 아름답고 청초한 꽃 한송이, 그것을 바로 곁에서 바라보며 노를 젓고있는 외로운 등대지기인 나.

도저히 현실같지 않았다.

생활이 늘 이렇게 아름답고 기쁨으로 충만되어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나는 한참만에야 스스로 제 처지가 생각나 쓴웃음을 지으며 언짢은 감정을 드러냈다.
- 박광, 「정든 곳」 부분(『조선문학』 2019.12)

갈매기를 행해 손을 젖는 처녀의 얼굴에 핀 ‘천진한 웃음’을 보면서 나는 ‘머리가 핑 도는’ 기쁨을 느낀다. 처녀는 초라한 전마선에 불쑥 피어난 아름답고 청초한 한 송이 꽃과 같고, 자신은 노를 젓는 ‘외로운’ 등대지기라고 생각하니, 현실 같지 않다고 느낀다. “내 운명의 주인은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지만, 무선전파기 개발을 성공해 섬을 나가고 싶지만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태다. “까닭 없이 었서나가는” 마음은 투덜거림으로 표현되고, 인사권을 가진 등대장은 내 속마음을 신경쓰지 않는다. ‘외로운 등대지기’인 나의 빈 공간을 갑작스럽게 채운 처녀의 모습은 그야말로 ‘머리가 핑 도는’ 기쁨으로 다가온다. 예술작품을 보고 충격과 감흥으로 격렬한 흥분상태에 빠지는 스탕달 신드롬(Stendhal syndrome)처럼 나는 현기증과 비현실감을 느낀다. 처녀에게 아름다움, 기쁨, 충만을 느꼈지만, 외로움과 결핍, 불만이 있는 ‘제 처지’의 현실은 나에게 쓴웃음과 언짢은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게다가 야영소에서 배를 타본 적이 있다는 처녀는 “천진한 소녀”와 같아 “순진성이 나의 마음을 즐겁게 하여주었다”고 느낀다. 나에게 초향은 ‘교원’보다 ‘처녀’ 기의로 작동한다. 나의 즐거움과 별개로 처녀는 “잔뜩 겁에 질린 얼굴표정”을 보여준다. 나의 시선 아래 무방비하게 놓인 처녀는 순진성과 천진함으로 나를 ‘즐겁게’ 해 준다.

나는 해풍과 날씨 때문에 꽃밭 조성이 어렵지만, 채송화 화분을 소중히 들고 있는 처녀가 실망할 것 같아 해당화는 잘 자란다고 말해준다. 그러나 해당화는 엇그제 몰아친 폭풍에 이미 잘려나간 상태였다. 그리고 나는 ‘갑자기’ 우울해진다. 동시에 처녀에 대한 연민의 감정이 커지면서 걱정하는 마음이 생긴다. 자신은 3년을 겨우 지냈는데, 이 “애리애리하고 아름다운 처녀”는 얼마를 견뎌낼 것인지 생각한다.

둘레가 5리 안팎인 바위투성이 등대섬은 해풍과 염기, 안개, 파도소리와 갈매기울음소리뿐인 ‘고적한’ 곳이다. 나는 도시에서 자란듯 싶은 ‘햇내기’를 황량한 돌바위섬에 보낸 일꾼들의 처사를 원망한다. 동시에 교원대나 사범대 졸업생들이 외진 두메산골이나 섬의 분교에 자원하는 것이 최근의 ‘사회적 미풍’을 이루고 있는 것을 떠올린다. 모교의 교원들과 대학생들의 ‘요란한 환송’을 받으며 떠나는 장면이 텔레비전에 소개되곤 한다. 대개가 ‘능름한 총각, 처녀들’이지, “배우에서 겁먹은듯이 사방을 불안스레 둘러보는 그런 애리애리하고 연약한 처녀”는 본 것 같지 않다. 일시적인 충동이나 사회적인 평가에 현혹되어 섬에 온 ‘철부지’일지도 모른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다시 처녀를 바라보자 조금 전의 스탕달 신드롬같은 감상을 다시금 받게 된다.

도시풍의 해말쑥한 얼굴에서 유난히도 빛나는 시원한 눈, 밧그스름하게 물든 두볼, 빨간 입술에 웃을 때마다 살짝 량볼에 패이는 보조개는 얼마나 깜찍하고 귀여운가?

게다가 상큼한 흰 목우에 물결쳐간 머리칼...

한마디로 처녀의 향취가 나의 마음을 이상스럽게 끌어당겼다.

나는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붉어진 나의 얼굴을 처녀선생이 보지 못한것이 천만다행이었다.

나는 아까부터 순진한 처녀를 자기식으로 야비하게 곡해한것과 같은 미안한감이 들었다.

- 박광, 「정든 곳」 부분(『조선문학』 2019.12)

처음 보았을 때 처녀는 ‘복숭아’ 같이 귀여운 소녀와 같았다면, 지금 나의 눈에 보이는 것은 눈, 볼, 빨간 입술, 흰 목, 그리고 머리칼 등으로 시선을 이동한다. 그리고 “처녀의 향취”가 나의 마음을 이상스럽게 끌어당기며 나는 얼굴이 확 달아오른다. 순진한 처녀를 자식 식으로 “야비하게 곡해”한 것 같아 미안함이 든다.

처녀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은 관음적이다. 좁은 배에서 노를 젓는 나와 처녀의 관계는 권력이 작동한다. 처녀의 불편한 자세와 불안함은 수심이 깊어지고 파도가 높아지는 환경의 영향도 있지만, 낯선 남자와 고립된 공간에 있는 불안함에도 기인한다. 처녀는 나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없고, 나는 이동의 수단을 통제하기 때문이다. 나는 처녀를 보면서 순진함과 관능미를 동시에 느끼는데, 나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처녀의 육체이다. 처녀는 나에게 ‘애어린 처녀’ ‘애송이’ ‘철부지’ ‘순진한 처녀’ ‘천진한 미소’를 가진 대상이자, 에로스적 육체의 대상이다. ‘야비하게 곡해’했다는 나의 미안함은 표면적으로는 처녀가 섬에 오는 것이 충동적인 과시욕으로 오해한 것으로 풀이되지만, 행간에 존재하는 것은 나의 에로스적 욕구와 관련된다. 처녀에 대한 나의 관음적 시선, 처녀의 육체를 관능적으로 감각하는 것에 대한 ‘야비함’이다. 프레드릭 제임슨은 “시각적인 것은 본질적으로 포르노그래피의 성질”²¹⁾을 지닌다고 도발적으로 말한 바이다. 소설에서 낮을 잃고 정신없이 매료되게 만드는 시각적인 것은 처녀이다. 욕망하는 주체로서 나는 욕망의 대상인 처녀와의 거리를 좁히고자 하지만, 좀처럼 처녀는 걸을 내주지 않는다.

2) 외로움과 고독의 감각

등대섬에 온 이유를 물으며 집 떠나는 것이 싫지 않았느냐는 나의 호기심어린 질문에 처녀는 “그런데 참 별걸 다 물으시네”라며 답한다. “처녀의 도고하고 랭랭한 반격”을 받은 후 나는 처녀가 속마음을 감추어두는 내성적인 형은 아니고, 비교적 활달하고 당돌하다고 평가한다. 처녀는 “한적한 곳에서 조롱에 갇힌 새”처럼 될 수 있다는 걸 알고도 섬에 왔다고 밝힌다.

그는 나에게 어지간히 자기 속을 드러내보이는게 민망스러웠던지 수집계 웃었다.

나는 처녀가 솔직하고 꾸밈이 없는것이 마음에 들었다.

－ 박광, 『정든 곳』 부분(『조선문학』 2019.12)

처녀는 수줍은 성격, 솔직하고 꾸밈없는 성격으로 다시 조정된다. 그래서 솔직한 처녀에게 자신을 엿나가게 만드는 고민을 묻는다. 실지로 그런 고독이 찾아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나의 질문에 처녀는 등대섬의 사람들이 좋은 분들이고, 분교는 도시 부럽지 않은 시설이 갖춰져 있다고 말한다. 나 또한 여기에 화답해서 섬에서 먹을 수 있는 별미와 함께 섬 식구들이 “한집 안식구처럼 위해주고 도우며 화목하게” 산다고 대답한다.

천진하기란, 남의 속은 알지도 못하면서…

슬그머니 한숨이 나갔다.

이야기속에 있는것처럼 섬이 그렇게 정이 폭들게 좋다면 내가 이렇게 뿌리들린 나무

21) 프레드릭 제임슨, 『보이는 것의 날인』, 남인영 역, 한나래, 2003, p.13.

처럼 살고있겠는가.

－ 박광, 「정든 곳」 부분(『조선문학』 2019.12)

나는 다시 처녀를 ‘천진하다’고 평가하며, 자신의 섬생활을 ‘뿌리 들린 나무’라고 생각한다. 서해에서도 너무 작은 등대섬은 지도에서 알아보기 힘든 곳이고, 사철 바람과 안개, 사나운 파도만이 있는 거친 곳이고, 사는 곳에 어려움이 많은 곳이다. 섬에는 나를 포함해 4명의 등대원과 무전수와 의사, 그리고 그 가족들이 살고 있다. 모두가 화목하게 지내는데 자신만은 “어쩐지 섬이 실똥할 때”가 있다. “등대원들의 집에서 저녁이면 안해들의 정다운 말소리와 깔깔거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면 자연스럽게 자신이 고독하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다.

청각은 보편적이고 원초적인 감각이다. 동물의 경우 소리는 생존과 관련 있는 감각이다. 등대불, 무선전자파신호기, 소리신호기 모두 위험과 안전을 알리는 의사소통 수단이다. 그러나 나는 이 소통의 과정에서 소외되어 있다. 나의 실험은 실패했고, 등대원의 업무에서도 실수를 했다. 게다가 나의 말을 함께 주고받을 가족도 없다.

소리는 선택적으로 차단이 어려운 감각이다. 일차원적인 감각인 청각은 등대섬의 신호기들처럼 위험을 감지하고, 정보를 전달한다. 덧붙여 정서적 의미까지 전달한다. 나의 고독은 다른 사람들처럼 ‘정다운 말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에서 소외된 데서 기인한다. 가족들과 소통하며 내는 각종 소리들은 소통하며 안정감을 느끼는 정서적 의미가 있다.

그리고 구름 사이에 뜬 무지개를 보고 나는 곧 들이닥칠 위험에 대비한다. 그리고 다시 나는 이 임무를 거절할걸 그랬다고 ‘후회’한다. 풍량이 거세질수록 나의 생각도 깊어진다. 처녀교원의 출현은 나에게 무엇인가 착잡한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처녀를 보고 ‘떴떴지 못하고 거북한’ 감정이 드는 것은 이 처녀선생이 굶은 날씨도 마다하지 않고 3명의 학생들을 위해 기어코 등대섬을 찾았는데, 나는 조국의 불빛을 뒤에 남겨두고 이 섬을 떠나려 했기 때문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갈길은 가야 한다. 내가 저 초소에서 꼭 살아야 할 의무나 리유가 더는 없지 않는가.”라고 자문하며 “지금 내가 하는 일보다 나의 꿈, 나의 희망이 너무나 크지 않는가. 나에겐 자기의 포부를 실현시킬 권리가 있다.”고 스스로를 정당화한다.

풍량이 높아질수록 소설은 내적 독백으로 갈등하는 심리를 보여준다. 처녀를 보고 떴떴하지 않은 마음이 들었지만, 자신의 포부대로 살고 싶은 욕망을 들여다본다. 우울하고 막막한 소리를 해서 처녀의 심리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했음에도 “참기 힘든건 외로움 속에 찾아드는 고독”이라고 고백한다. 동료에게 토로한 단조로운 섬생활의 지루함은 “쓸데없는 생각”으로 빈축을 샀다. 처녀의 반응도 이와 다르지 않다. 시를 읊조리듯 말하는 처녀는 조국의 불빛인 등대가 있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아직 고독과 외로움을 모르는 처녀의 천진함을 보고 나는 헛웃음을 짓는다. 자신처럼 3년을 지내면 고독을 과연 모르고 살겠느냐고 “나의 심신을 지배하고 있는 속심”을 다 드러내자 처녀는 오히려 분노에 가까운 눈빛을 보낸다. 괜한 소리를 해서 초면에 아름다운 처녀를 노엽게 한 자신이 몹시 민망스럽고 창피스러워 몹시 후회가 된다.

고백은 자기 삶의 진실성을 독자에게 설득하고자 설계된 서사 방식이다. 고백하는 화자 ‘나’는 기획된 화자이다.²²⁾ 작가가 서술한 나의 고독과 외로움은 초향에게도, 동료에게도, 등대장에게도 이해받지 못한다. 비바람이 거세질수록 나의 심리도 불안정해진다. 나의 신경질적인 모습과 내적 독백은 개인적 국면에서 실존을 확인하고, 때로는 타자의 인정을 갈망하고, 고독과 외로움의 상태를 보여준다.

처녀교원의 말에 반발하면서도 수긍하는 나의 태도는 공인된 언어 체계로 돌아가고자 하는

22) 강유정, 「자전적 서사의 서술기법과 공감의 문제」, 『현대소설연구』 67, 2017, p.292.

북한 문학의 탄생 조절이다. 북한 문학에서 개인의 우울과 외로움, 고독의 문제는 생경한 소재이다. 개인이 겪는 시련과 고난은 민족의 운명과 국가의 미래라는 거시 담론 체계에서 극복할 요소이지 신경증적으로 빠지는 심리는 해당되지 않는다. 소설은 일탈하려는 나의 마음과 시선, 관능의 고삐를 처녀교원의 잘 정리된 답변으로 통제하려고 하지만, 우울과 고독으로 명명된 ‘나’의 심리는 무의식적으로 굴절된다. 게다가 처녀교원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은 갈망의 한 표현이다. 섬에서 자폐적으로 고립된 자신의 외로움과 고독을 오늘 처음 만나는 처녀교원에게 말할 수밖에 없는 좌절과 절망의 언어를 내포하고 있다.

이 소설에서 나는 끊임없이 자신의 외로움과 고독을 고백한다. 고독은 사회와 단절되고 고립된 상황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심리를 의미한다. 한나 아렌트는 자신의 현존과 의식 사이에 발생하는 불일치에서 고립(isolation), 고독(solitude)의 내적 상태가 생길 수 있다고 보면서, 이를 외로움(loneliness)과 구분했다.²³⁾ 고립은 공동의 관심사를 함께 추구하고 행동하는 삶의 정치 영역이 파괴되어, 능력을 펼칠 기회가 상실되었을 때 나타난다. 세상에 소속되지 못하는 고립은 절망적인 경험이다. 고독은 스스로 홀로 되어 자신과 마주보며 대화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때 고독은 사유를 통해 자신과 대화하며 성찰한다. 고독은 타자와의 교류를 필요로 하며, 타자와의 접촉을 통해 자기 정체성을 확인한다. 반면에 외로움은 자아상실의 상태에서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해 부유하는 상태이다.

무선전화전자파신호기 개발에 매달리는 이유는 성공만 한다면 주변의 인정을 받고 물에 나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들끓는 생활,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타자와의 교류를 희망하는 나에게 섬 생활은 너무나 단조롭고 외롭다. “내 운명의 주인은 나 자신”이지만, “외로움 속에 찾아드는 고독”은 참기 힘들다고 고백하고 만다. 자기희생이라는 도취상태에서 파견장을 받고 섬에 왔지만 고립적 환경은 단조롭고 외로운 생활을 만들어 이곳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떠나온 도시에서의 삶, 두고 온 인간관계는 강력한 그리움으로 부상한다. 섬사람들이 만드는 화목한 대가정 풍경 속에서 자신은 소외되었다. 처녀교원 이전의 교사조차 가정을 꾸린 만삭의 여선생이었다. ‘물’이 그의 노스텔지어가 되는 것은 그만큼 현재의 삶이 고립되어 있음을 반증한다. “이런 식으로 어물어물하다가 언제 또 일 년이 지날지 알 수가 없다”는 생각은 자신을 불안하게 만들고 무력하게 한다. 타자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막히면서 나는 더욱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

홀로 지내게 될 처녀교원은 이런 점에서 나의 외로움을 이해하는 타자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고독에 대해 대화하게 되지만, 결론적으로 나의 고독은 물이해로 끝난다. 내가 자기희생의 도취에 빠져 섬에 왔다면 처녀교원은 ‘고결한 정신’으로 왔기 때문이다. 채송화가 환유하는 조국의 사랑은 성운이 감화되는 촉진제일 뿐이다. 나는 처녀교원을 통해 국가가 원하는 방식으로 실존을 확인받고, 국가의 지배력은 처녀교원의 사명감과 이상주의로 재배치된다. 소설의 말미에서 어디나 내리쬐이는 햇빛처럼 조국의 관심과 사랑을 확인하며 나의 고민은 어느 틈엔가 증발해 버린다. 그렇다고 해소된 것은 아니다. 나와 처녀교원이 배 위에서 조성한 긴장된 관계는 비바람이 멈추고 섬에 도착하면서 사라진다. 이 과정에서 처녀교원은 나에게 ‘선생님’으로 용해되고, 두 사람은 윤리적,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으로 끝난다. 소설에서 시종 ‘나’는 처녀교원을 시각으로 감각했지만, 초항은 나와 공적 거리를 마지막까지 유지했기 때문이다. 일방적인 관찰의 결과인 것이다.

23) 한나 아렌트, 『정치의 약속』, 김선욱 역, 파주: 푸른숲, 2007, pp.29-69.

4. 나가며

포스터, 영화, 문학, 잡지를 비롯해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북한의 각종 매체들은 ‘모범적인’ 인물을 묘사하여 따라 배울 수 있도록 안내한다. 북한의 문학예술 대부분은 국가정책과 담론을 내면화한 인물을 중심으로 서사를 쓴다. 국가가 부여한 사명을 열정적으로 수행하는 인물이 등장하고, 국가 담론과 당적 목표를 선전하는 것이 북한 문학의 본질로 간주된다. 국가와 당이 북한의 문학예술을 작동하는 열쇠를 쥐고 있으며, 문학예술의 생산과 유통까지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가들은 선전선동의 나팔수에 충실히 복무해야 할 의무에 맞게 최고 지도자의 통치 이념이나 국가정책과 당의 노선을 기동성 있게 반영하는 위치에 있다.

일반적으로 북한 문학에서 독해되는 개인은 집단의 열망을 대표하는 개인이다. 세속적이지만 비속하지 않으며, 개인의 영달보다 집단의 이익과 공동체의 복리를 우선한다. 어쩌면 훌륭하게 잘 형성된 주인공은 북한 주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경험과 동떨어져 있을지도 모른다. 멀리 떨어져 나가려는 원심력을 갈무리하여 국가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구심점으로 되돌리고자 하는 열망이 이러한 주인공을 형성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럼에도 북한 문학의 행간에는 국가와 당의 담론적 층위와 미묘하게 갈등하는 부분들이 걸쳐있다.

그렇기에 인물 형상에 변화가 목격된다면, ‘변화’를 추동하는 요인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북한 문학에서 주변부의 생활이 약동하며 일으키는 균열이 포착된다면, 이전과 다른 형상 방식이 있고 이전에는 출현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인물이 등장한다면, 이는 북한 변화를 담지한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두 편의 소설은 이상적 주인공들이 침묵해 온 부분이 형상의 일부를 이루고 있어 주목된다. 주변부적 일상, 감정의 동요들, 주관적이고 이기적이어서 은폐되어야 하는 욕망의 파편들에서 개인을 포착할 수 있다. 피부의 표면에 입혀지는 옷, 장신구, 머리 스타일은 파놉티콘의 징계 메커니즘에 구속되지만, 피부 아래에서 작용하는 감각은 주관성과 개별성의 표징이다. 1인칭 주인공이 겪는 감각적 경험들, 우울하고 쓸쓸한 감정과 고독은 표준화될 수 없고 이상적으로 형상될 수 없는 주관의 영역이고 개인의 분야이다. ‘나’의 자의식과 내면이 굴절된 몸은 사회 발전과 개발을 위해 동원되는 ‘기계와 같은 몸(body as machine)’과 구별된다. 국가 담론을 실천하는 윤리적 신체는 여전히 중요하게 취급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용되지 않은 감각과 감수성이 문학의 언어로 작성되었다. 이런 점에서 「사랑하노라」의 유정이 느낀 감각, 「정든 곳」의 성운이 통제하지 못한 우울은 북한에서 발견되는 개인의 모습이다.